

제주도의 마을 :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는 공간

정 광 중*

- <차
 례>
1. 머리말
 2. 마을과 마을자원의 개념
 3. 마을자원의 구성과 활용실태
 4. 마을자원의 활용에 대한 시각
 5.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의 마을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마을에는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며 또한 제주도식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마을은 학생들의 학교교육과 연관된 학습활동의 장으로서의 물론이고 어른들의 사회교육의 장으로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 더불어 관광객들을 포함한 탐방객들에게는 마을단위의 소박하고 아늑한 정감과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관광활동의 장(場)이 된다. 또한 제주도의 마을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술활동의 장으로서도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제공한다.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제주도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 지니는 다양성을 바탕 삼아, 지역자원(마을자원)의 가치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제주도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색다른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마을과 마을자원의 개념

마을의 개념은 학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마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 대사전』에서는 마을이란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이라 정의하고, “동리(洞里)·방촌(坊村)·촌(村), 촌락(村落), 촌리(村里) 등과 유사한 개념”(이희승 편, 1982 : 1108, 한글학회, 1992 : 128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문적 차원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문병집은 “마을은 촌락공동체의 우리말 표현으로서, 한국 고대사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집회소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촌락을 가리키며,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모여 산다는 의미의 무리(群)의 뜻을 지닌 ‘뭍’, ‘뭍을’, ‘뭍슬’, ‘마실’ 등으로 불렸다”(1970 : 6)고 한다. 그리고 그는 “마을은 자연발생적인 지역공동체였으며, 지역공동체는 혈연공동체의 분화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혈연공동체가 자연적인 일 지역을 보유하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미약할수록 자연적으로 공고한 공동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마을”(1970 : 24)이라고 하였다.

유철인은 “마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공동생활 특히 농촌공동생활의 전형적인 지역단위”(1998 : 485)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종필 외는 “마을이란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집단 거주하는 것”(1983 : 11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임재해는 “마을은 공동체문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우리가 터 잡고 살아가는 가장 실질적인 사회생활 울타리”(2002 : 3)라고 마을의 성격과 개념을 아울러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을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마을은 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농촌적 공간, ② 지역 또는 혈연공동체의 집단적 공동생활과 공동조직이 이루어지는 기초지역, ③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단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소고에서도 선학들이 정리한 이들 개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연구의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한편, 마을자원이란 “일정한 마을 내에 자리잡고 있거나 전승돼온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해당마을을 널리 알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걸맞게 제주도의 마을에는 실로 다양한 마을자원들이 존재한다. 가령 유형의 자연과 역사·문화관련 자원은 물론이고 전설, 신화, 설화, 민요, 마을제와 당제(堂祭), 민속기술 등 민속과 신앙관련의 무형 자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본 소고에서는 이들 마을자원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활용을 전제로 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유도해 가고자 한다.

3. 마을자원의 구성과 활용실태

제주도를 마을단위로 접근해 보면,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과 <표 2>는 마을단위에서 분류한 마을자원을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주도의 마을에는 표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존재하지만, 편의상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먼저 자연자원의 구성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형지질자원, 식생자원, 해양자원 및 기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지형지질자원에는 기암(괴석), 오름(측화산·기생화산), 동굴, 폭포·소연(沼淵), 계곡, 지층·화석, 도서(유·무인도)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상위자원에 해당되는 마을단위의 구체적인 자원들이 존재한다. 인문자원은 크게 문화자원, 산업자원, 레저·스포츠자원 및 기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문화자원은 문화재(지정·비지정), 박물관·미술관·전시관·테마파크·공연장, 생활민속, 당·사찰자원으로, 산업자원은 농원·목장, 도로, 도대불·포구·항구, 기타자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상위자원에는 마을단위의 구체적인 자원들이 존재하나, 실제사례에서는 극히 일부분만을 제시하였다.

이들 마을자원에 대해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다. 마을자원은 먼저 경제적 활용을

고려하기 이전에, 자원의 속성과 더불어 해당마을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나아가서는 마을주민들의 정신과 마을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소중한 실체라는 사실이다. <표 1>과 <표 2>에 제시한 마을자원들 중에서는 제주도 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자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마을단위 정도의 지명도(知名度)나 상징성을 지닌 자원들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마을자원들은 결과적으로 지명도와 접근도, 경제적 활용성 등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 탐방이 많은 자원의 사례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마을단위의 알려지지 않은 개별적 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면에는, 제주도 내의 여러 마을에 이외로 알려지지 않은 자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표 1>과 <표 2>에는 그러한 자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표 1> 마을자원의 관점에서 본 자연자원 현황

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지 형 지 질 자 원	기 암	한라산(서홍동·토평동), 용두암(용담2동), 외돌개(서홍동), 오백나한(하원동), 절부암(용수리), 선돌(신양리), 왕관릉(아라동), 삼각봉(오라동), 갯깁 주상절리(예래동), 중문-대포 주상절리(중문동), 영실기암(하원동) 등
	기생화산(오름)	성산일출봉(성산리), 거문오름(선흘리), 산방산(사계리), 산굼부리(교래리), 수월봉(고산리), 다랑쉬오름(세화리), 영주산(성읍리), 소머리오름(천진리), 송악산(상모리), 용눈이오름(종달리), 아부오름(송당리), 사라봉(건입동), 원당봉(삼양동), 하논(호근·서홍동), 새별오름(봉성리), 삼매봉(호근·서홍동), 고근산(서호동) 등 368개
	동 굴	빌레못동굴(어읍리), 만장굴(김녕리), 김녕사굴(김녕리), 당치물동굴(월정리), 용천동굴(월정리), 벵뒤굴(선흘리), 수산굴(수산리), 와흘굴(와흘리), 미천굴(삼달리), 협재굴(협재리), 쌍용굴·황금굴·소천굴(협재리), 산방굴(사계리), 차귀도·우도의 해식동굴, 범섬·마라도 해식동굴 등
	폭포 / 소연 (沼淵)	정방폭포(동홍동), 소정방폭포(동홍동), 천제연(서귀동), 천지연(색달동), 영또폭포(강정동), 원앙폭포(상효동) / 백록담(토평동), 물영아리·물장오리·물차오름·어승생악·사라오름·동수악의 산정호수, 혼인지(온평리), 용연(용담2동), 쇠소깍(하효동), 논짓물(예래동), 무수천(광령리), 방선문(오등동), 산지천(건입동)·강정천(강정동) 하류 등
	계 곡	탐라계곡(오등동), 영실계곡(하원동), 아흔아홉굴(99곡, 해안동), 안덕계곡(감산리), 돈내코(상효동), 수악계곡(하례2리·신례1리) 등
	지층 / 화석	서귀포지층(서홍동), 신양리층(신양리), 송악산(상모리)·수월봉(고산1리)·소머리오름(천진리) 주변의 화산쇄설성 퇴적층, 용머리 지층(사계리) 등 / 서귀포지층 내의 패류 화석, 송악산 해안의 조류화석(상모리), 사계리 해안의 동물발자국화석, 송악산과 우도 소머리오름 부근의 갈대화석(천진리) 등
	도 서 (유인도 / 무인도)	유인도 : 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 무인도 : 토끼섬(하도리), 범섬(범환동), 설섬(보목동), 문섬(서귀동), 새섬(서귀동), 지귀도(위미1리), 형제섬(사계리), 차귀도(고산리), 눈섬(고산리), 서건도(씩은섬, 강정동) 등

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식생자원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감산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사계리), 위미동백나무군락, 도순동 녹나무자생지군락, 서귀포 담팔수나무자생지(서흥동), 신례리 왕벚나무자생지, 납읍난대림지대(납읍리), 천제연 난대림지대(중문동), 천지연 난대림지대(서귀동), 구좌읍 비자림지대(평대리), 한라수목원(연동), 서귀포자연휴양림(대포동), 절물자연휴양림(봉개동), 김녕미로공원, 비자림로의 삼나무숲, 5·16도로 변의 숲터널(위미1리·한남리), 꽃자왈지대의 나무숲, 여미지 식물원(색달동),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나무숲, 한라산 선작지왈의 철쭉군락, 여러 마을 내의 정자목(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 후박나무) 등
해양자원	용머리 해안(사계리), 섭지코지 해안(신양리), 남원리 큰엉, 신엄리 해식애, 대평리 해식애(박수기정), 소남머리(정방동), 돌배낭굴(호근동), 구엄리-중엄리 해안, 중문·함덕·협재·김녕·하모·표선·신양·곽지·금릉·이호·삼양해수욕장, 우도홍조단괴해빈(연평리), 내도 알작지 해안(내도동), 추자도 신양리 작지해안(장작평사), 서귀포 앞바다의 산호군락, 추자도 및 제주 해안의 낚시터 등
기타 자원	제주의 현무암(발담, 산담, 잣담 등), 한라산국립공원, 하도리·용수리 철새도래지, 하가리 연하못·덕천리 반못 등 습지, 제주자생의 야생 동·식물(노루, 원앙, 꿩, 제주족제비, 오소리 등/한란, 풍란, 황근, 왕벚나무, 구상나무, 한라부추, 손바닥 선인장, 제주황기 등), 제주마(조랑말), 용암수형, 화산탄, 장수물·구시물 등의 용천수 등

(자료 : 제주도청, www.jeu.go.kr / 제주특별자치도, 2007, 『문화·관광·스포츠현황』 등에 의해 필자 작성)

〈표 2〉 마을자원의 관점에서 본 인문자원 현황

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문화자원	<p>지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덕정(삼도2동), 불탑사오층석탑(삼양동), 제주향교(용담2동), 연복정(조천리), 대정향교(사계리), 정의향교(성읍리), 일관헌(성읍리), 향사당(삼도1동), 신촌향사(신촌리), 추자 처사각(추자면 영흥리) 등의 보물 및 유형문화재 ● 삼성혈(이도1동), 제주목관아지(삼도2동),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삼양동),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고성리),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고산리) 등의 사적지 ● 연자마(하가리, 신엄리), 성읍민속마을, 성읍 조일훈가옥, 성읍 고평오가옥(성읍리), 돌하르방(제주시·성읍리·대정읍성 주변 총 45기), 제주시 도두·이호동 방사탑, 복신미륵(2기 : 용담2동, 건입동) 등의 중요민속자료와 민속자료 ● 제주칠머리당굿(건입동), 제주민요, 잣길, 탕건장, 망건장, 방앗돌굴리는노래, 해녀노래, 납읍리·송당리 마을제,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고소리술, 덕수리 불미공예, 제주큰굿, 영감놀이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 장천리·하귀리·광평리·외도동·삼양동·도두동·용담동 지식묘, 봉수대(25 개소), 연대(38 개소), 오현단(이도1동), 제주성지(이도1동), 서귀진성(서귀동), 화북진성(화북1동), 해신사(화북1동), 목석원(아라동), 화북비석거리(화북1동), 범화사지(하원동), 명월대(명월·동명리), 별방진(하도리), 북촌리 선사주거지 유적, 명월성지(명월리), 대정성지(보성·인성·안성리), 혼인지(온평리), 최영장군사당(추자면 대서리), 환해장성(화북1동·온평리 등) 등의 기념물
	<p>비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선사유적 : 화순리·종달리 패총, 용담동·오라동·외도동·예래동·동명리 등의 유물산포지, 화북동·삼양동·우도·하모리·신례리·신산리·색달동·가파도 등의 고인돌, 대림리·가파도 선돌, 예래동·중문동·하례리·한남리 등의 바위그늘주거지 등 ● 일부 역사유적 : 고내리·북촌리·행원리 환해장성 등, 도내 일원의 하жат성·중жат성·상жат성, 차귀진성(고산리), 수산진성(수산리), 애월진성(애월리), 조천진성(조천리), 정의현성(성읍리), 산양리(월광동)·고산리(굴동산)·조수2리(불그뚝) 노랑굴(도요지), 구역리(상동) 검은굴(도요지), 무릉리(인향동) 기와가마, 신흥리 방사탑(납) 등 ● 일제 강점기의 전적 유적(등록문화재) : 알뜨르 비행장, 남제주강병대 교회, 남제주비행기 격납고, 송악산 해안·성산일출봉 해안·섭지코지·수월봉·어승생악 등의 진지시설, 이승만별장 등 ● 문화축제 : 탐라문화제,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유채꽃잔치, 남원고사리축제, 제주도새기축제, 서귀포칠선녀축제, 철쭉제, 설문대할망축제, 제주국제관악제, 서귀포칠실리축제, 모복자리둑축제, 제주역새꽃축제, 제주감귤축제, 탐라국입춘굿놀이,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자원 구분		구 체 적 사 례
문화자원	박물관 / 미술관 / 전시관 / 테마파크 / 공연장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민속박물관, 신영영화박물관, 초콜릿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테디베어뮤지엄, 오설록녹차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성산포조가비박물관, 소리섬박물관, 평화박물관 등 /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신천지미술관, 금오당미술관,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포토갤러리자연사랑미술관, 설록차전시관 등 / 제주항일기념관, 항몽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정석항공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삼양동선사유적전시관, 추사적거지, 하멜기념관, 네델란드옛보기전시관, 이기풍선교기념관, 이승만자료관, 제주나비레전시관 등 / 돌문화공원, 김녕미로공원, 한림공원, 소인국테마파크, 소인국미니월드, 동물테마파크, 제주조각공원, 여미지식물원, 퍼시픽랜드, 방림원식물원, 분재예술원, 일출랜드, 금릉식물원 등 / 회천관광타운, 탐동해변공연장, 제주민속관광타운 등
	생활민속	제주초가(남읍리·표선리·성읍리 등), 제주와가(조천리·신촌리 등), 제주방언, 제주도예원, 제주옹기마을, 제주민속오일시장(제주시·표선, 대정·성산·중문·서귀포 등), 전통재래시장(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당 / 사찰	송당리본향당, 와흘리본향당, 건입동칠머리당, 종달리생개납둔깃당, 마라도애기업개당, 상명리느지리캐인틀당, 대포동 줄녀당, 상귀리 황다리케당, 삼달리 웃카름당, 김녕리 서문하르방당, 신천리 현씨일월당 등 / 관음사, 천왕사, 석굴암, 산방굴사, 존자암, 약천사, 법화사, 불탑사 등
산업자원	농원 / 목장	서광다원(서광서리), 도순다원(도순동), 한남다원(한남동), 금산자연농원, 도내 일원의 감귤원 / 송당목장, 이시돌목장(금악리), 명도안관광휴양목장(봉개동), 제동목장(교래리), 대원목장(교래리), 건영목장(송당리), 제주마방목지(봉개동) 등
	도 로	비자림로, 산록도로변(아라동) 및 1100도로변(노형동) 신비의 도로(도개비도로), 이중섭거리, 하귀-에월 해안도로, 세화-성산해안도로, 사계해안도로, 신창-용수해안도로, 5·16도로 등
	도대불 / 향구·포구	용담동 다끄네·김녕리·복촌리·고산리 자구네·대포동·보목동 포구 도대불 등 / 제주향, 서귀포향, 성산포향, 모슬포향, 애월향, 용담2동 다근개, 이호동 백개, 신흥리 옛개, 수T언리 조물개, 고산1리 자구네, 가파리 믹시리·향개, 하모리 모살개, 강정동 세별포, 대평리·표선리 당개, 위미리 앞개, 신예리 공천포, 법환동 막숙개, 종달리 두문이개, 성산리 수마포, 은평리 등개·서개 등
	기 타	제주도내 원담(개, 돌그물), 행원리 풍력발전단지, 신창리 풍력발전단지, 월령리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마라도·영실의 태양열 발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수 공장 등
레저·스포츠시설 자원	돈내코 유원지, 동복리·하효동·구엄리 바닷잡이 체험어장, 제주경마장, 제주월드컵경기장, 대유랜드, 대국해저관광(잠수함), 제주씨월드, 남녕월드, 오라·제주·중문·크라운·핀크스·파라다이스·다이너스티·나인브릿지·레이크힐스·블랙스톤·라운·캐슬렉스·엘리시안·봉개프라자·제피로스·사이프러스·샤인빌·스카이힐제주·한라산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기타 자원	해녀, 제주의 음식 : 옥돔구이정식, 갈치호박국, 몸국, 자리물회, 한치물회, 전복죽, 말고기 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김녕, 우도, 섭지코지, 법환동 포구, 사계리 해안, 신라호텔 정원 등) 등	

(자료 : 제주도청, www.jeu.go.kr / 제주특별자치도, 2007, 『문화·관광·스포츠현황』 등에 의해 필자 작성)

중요한 사실은, 마을 단위로 볼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창조·건설되거나 발견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표 1>과 <표 2>에서 예를 든다면, 자연자원에서는 지형지질자원 중 동굴이나 화석, 인문자원에서는 문화자원 중 박물관·미술관·전시관, 그리고 산업자원 중 여러 도로, 풍력발전단지 등은 그 일례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자원의 활용도를 전제할 때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접근문제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속속 개설된 해안도로이다. 이 해안도로는 도로구분 상, 시·군도(市·郡道)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부터 2시 2군

체제에서 각기 건설되었다. 현시점에서 평가할 때, 이들 해안도로의 개설은 한동안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여러 마을단위의 자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해안도로는 많은 사람들의 드라이브나 해안경관의 감상을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그 자체는 특별한 자원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내의 해안도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5개의 구간에 개설되어 있다(그림 1).

해안도로의 개설에 힘입어 해안지역 주변의 마을자원들이 부분적이거나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내의 크고 작은 항·포구를 비롯하여 부속섬, 원담, 도대불, 연대, 해식(단)애, 해녀, 체험어장, 방사탑과 해신당, 오름(해안지역에 위치한 오름), 진성,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과호이호이 용암류와 아아 용암류로 뒤덮인 해안의 경관지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들 마을자원이 해안도로 개설 이전에는 전혀 감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로개설 이후에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해진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하나 얼마나 많은 관광객(탐방객)들이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마을자원을 목표 삼아 찾고 있는지, 또는 마을자원을 찾아온 관광객(탐방객)들이 얼마나 강한 이미지와 환희를 얻고 돌아가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분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대답이 동시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에 부정적인 대답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이들 마을자원은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1> 제주도내 해안도로의 위치

(자료 : 일반 관광지도에 필자가 번호 삽입)

4. 마을자원의 활용에 대한 시각

마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활용을 전제하는 자원들은, 현시점에서 볼 때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마을자원은 먼저 활용을 고려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마을의 역사와 문화의 속성 그리고 인근마을과의 자연 환경적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마을자원은 누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활용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당연한 일지지만, 마을자원의 활용주체는 마을주민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목적과 세부적인 활용방안, 운영방침 등이 마을주민의 대의기관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이와 같이 마을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마을) 만들기” 사업(2007년 1월 이후~현재)이나 한동안 지역신문의 특별 기획기사였던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2006년 12월~2008년 2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 추진 기획)에서 여러 마을들의 사례가 보고·보도됨으로써 한층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¹⁾. 실질적으로는, 약 2년 전부터 마을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하고 활용해 보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이나 운동에서 소개된 여러 마을자원의 특성을 보면, 마을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한두 가지 자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마을의 존재적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마을이 오랫동안 안아왔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돌파구로써 마을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자원의 활용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일면을 제공하는 것이며, 여러 마을에서도 참고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여러 마을의 “마을 만들기”사업과 운동에서 부각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특정마을의 공간적인 범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진다. 단지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진척되려면, 마을에 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을 지닌 리더(주민자치위원장, 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등)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마을자원의 활용방법은 마을전체를 상품화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되,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자연물(바다 포함), 역사·문화(민속·신앙 포함)관련 대상과 장소, 무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 보유자(반드시 기능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특정분야에 뛰어난 사람[농부, 해녀, 그 외의 장인 등])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각은,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도시관광이나 주요 관광시설을 통해 느끼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함은 물론 농촌과 어촌이 가지는 시골풍의 분위기 속에서 한가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마을사람들의 일상생활을

1) 이들 사업이나 운동과 관련하여 이미 다음과 같은 결과물들이 나와 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2007, 『선진국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사례집』, p.221.

② 한라일보, 2008,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p.181.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일전에 지역신문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마을자원의 중요성을 설파한 적이 있다. 주된 내용은 마을해안의 자연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쓴 글이지만, 마을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각을 고려할 때 참고가 될 듯 하여,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고자 한다(정광중, 2008년 3월 1일자, 제주일보, 「제주시론」 “제주도의 마을해안 다시 보기”.).

.....전략

예류(野柳)관광을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필자의 머리 속에는 기묘한 바위로 구성된 타이완의 예류해안과 검은색 용암류로 뒤덮인 제주도의 마을해안이 교차되며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물론 제주도의 여러 마을해안에도 타이완의 예류 못지 않게 멋있고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갖춘 관광지는 많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의 여러 마을해안도 충분히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 제주도 해안지구에서 관광지로 이름 난 곳들은 오름을 비롯하여 폭포와 주상절리, 화산퇴적층과 부속섬 등 모든 사람들이 멋있고, 웅장하고 희귀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요소를 배경으로 한 관광지가 대부분이다. 이들 해안 관광지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기어코 한번씩은 들리는, 말하자면 정기 코스 of 관광지이다.

이들 해안 관광지만으로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해안을 즐기고 체험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색다른 아이디어를 활용한다면, 제주도의 여러 마을해안에 존재하는 경관 그 자체를 관광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주도의 여러 마을해안에 까맣게 덮여있는 파호이호이 용암류와 아아 용암류, 이들이 흐르면서 높게 쌓아놓은 해식단애, 용암류가 바다 속으로 흘러들며 곳곳에 자리잡은 수중 암초, 파도의 침식에 의해 편평하게 깎여나간 파식대, 풍화산물인 크고 작은 바위들,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작지와 먹돌,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는 용천수 등이 기본적인 관광요소이자 체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 자연요소에다가 마을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포구를 비롯한 원담, 도대불, 연대, 환해장성, 해신당, 방사탑 등을 덧붙인다면, 제주도내의 평범한 마을해안으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해안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몇 개의 마을을 단위로 작은 규모의 방문센터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먼저 방문센터에서 생생한 화면을 통해 해당지구의 해안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감상 후의 탐방 루트와 체험장소 등을 알릴 수 있다면 한층 더 고무적일 것이다. 이쯤 되면, 마을의 해안자원을 자유롭게 설명하며 안내할 수 있는 해안지역(형) 해설사의 양성도 고려해 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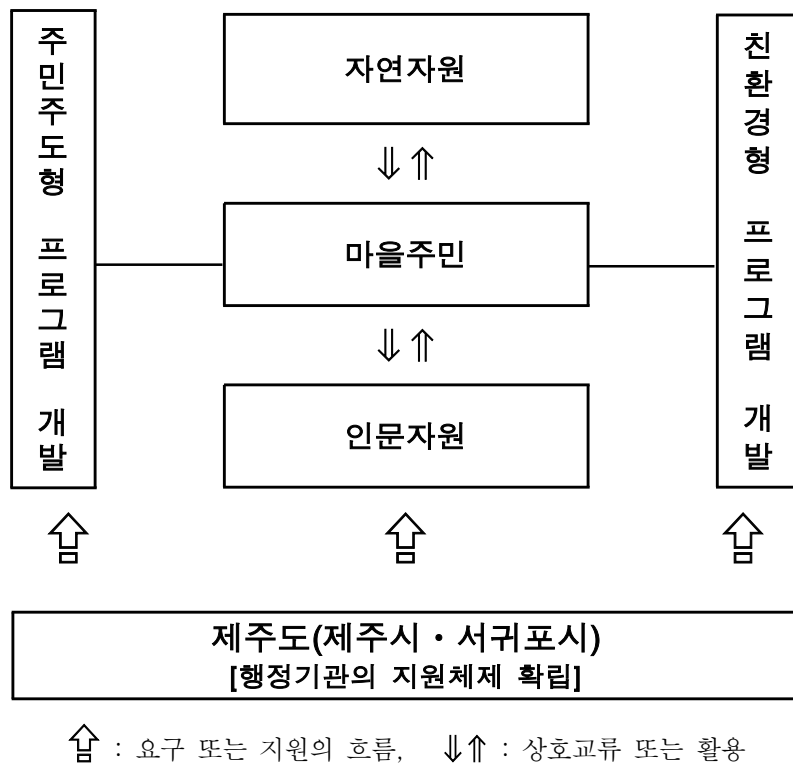
.....후략

더불어서 마을자원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마을의 공간적인 범위를 바탕으로 두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교묘하게 결합하는 과정을 걸치며,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친환경적 내지 친생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자문 혹은 일정액의 경비지원을 받으며 개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마을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이어야 보다 바람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모식화 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상과 같이, 마을자원을 토대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신들의 마을

의 존재와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예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 또는 탐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쨌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마을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물품, 음료수, 식사, 기념품을 포함하여 기타 특수한 체험 등에 필요한 소지품들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효과를 취하기 위한 사업구상과 실행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항상 결과에 대한 대가는 노력과 정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사업구상과 실행은 항상 인내하며 시간을 두고 한 계단씩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제주도내 마을의 지역활성화를 전제로 한 자원활용의 모식도(筆者 原圖)

5. 맺음말을 대신하여

—마을자원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부여를 위한 제언—

제주도의 마을은 제각기 얼굴이 다르다. 해안마을은 해안마을대로 중산간 마을은 중산간 마을대로 서로 다르다. 물론 서로 같거나 비슷한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률적으

로 똑같은 마을은 단 한군데도 없다. 이러한 배경에 대하여 지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마을을 구성하는 지리적 환경구성 요소의 차이, 즉 자연환경요소와 인문환경요소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제주도 마을의 자연 및 인문환경요소는 서로 다르다. 다른 이유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라산이나 오름을 가까이 두고 있거나 토양의 비옥도가 다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중심부로부터 가까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배경에서도 발생한다. 이외에도 마을끼리 서로 다른 배경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느 마을이든 간에 사람이 피부색과도 같은 그 마을만의 고유의 색채(色彩)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마을마다 소유하고 있는 마을자원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웃 마을이나 또는 설령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동일한 자원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자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해당마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마을에 산재하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활용해 나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간단히 풀리는 숙제는 아니다. 해당마을의 리더를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야만 한다. 제주도의 마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특성과 가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자연자원을 정리해 보자. 제주도의 여러 마을에는 투박하지만 아기자기한 멋을 지닌 용암 덩어리와 오름, 바다정원인 암반지대(해안마을), 신이 조화를 부린 듯한 조각바위(形象石) 등이 산재한다. 이들은 화산활동의 결과 만들어진 유형의 지형자원으로서, 모두 마을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이자 마을자원이다.

제주도 마을에 산재하는 인문자원으로서 고인돌(지석묘), 성담(읍성, 진성, 갯성, 환해장성, 4·3 성담 등), 연대(烟臺), 봉수대(烽燧臺), 오래된 비석(기념비), 방사용 돌담, 비보용 돌담, 역사적 사건 관련대상과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역사성이 짙은 인문자원들로서, 해당마을은 물론 제주도과 한반도의 역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다. 이들 역사성이 강한 마을자원을 통해 제주도의 과거상황을 여러모로 되돌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마을발전을 꾀하는 데에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을자원 중에서도 문화적인 특성이 매우 강한 자원들이 있다. 특히 이들은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가령 주거, 농경, 어로, 목축활동, 민속, 신앙, 음식(식수), 사고체계, 공동체 생활 관련 장소(대상), 마을 내 특정집단이나 혹은 마을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흔적(장소, 대상, 결과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초가와 돌담(집담, 밭담, 경작지 내의 갯담, 산담 등)을 비롯하여 농경지(우영밭, 드랭이밭, 논 등), 공동창고, 상앗집(보관장소), 신당(본향당), 포제단, 해신당, 마을공동목장, 공동묘지, 연자마(똥방애), 포구, 원담(개), 불턱(해녀탈의장), 공동수도(터), 용천수(터)와 봉천수(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마을자원은 반도(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것들이 많으며, 이들 역시 제주도의 문화특성을 이해하고 전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전의 당위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자원들이며 나아가 활용도도 높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마을에는 성격이 서로 유사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역사자원, 문화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제각기 해당마을 주민들이 소중하게 보전하거나 가꾸어온 얼굴이자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마을자원은 앞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색다른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해당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아가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마을자원의 궁극적인 활용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문병집, 1970, 『한국의 촌락에 관한 연구』, 중앙대출판국.

유철인, 1998, 「마을」(제주도, 『제주의 민속(V)-민간신앙·사회구조-』), 458-531.

이종필·현중영·장병문·박호건, 1983, 『영남지방 고유취락의 공간구조』, 영남대학교 출판부.

이희승 편,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임재해, 2002, “머리글 : 다시 민속 마을 조사를 시작하면서”(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마을 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3-5.

정광중, 2008년 3월 1일자, 제주일보, 「제주시론」 “제주도의 마을해안 다시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2007, 『선진국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사례집』.

한글학회, 1992, 『우리말 대사전』, 어문각.

한라일보, 2008, 『특별자치 마을만들기』.